

“문화도시 전주 빛낸 예술인 찾아요”

12월 6일까지 '제33회 전주시 예술상' 10개 부문 수상 후보자 방문·우편 접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지역 문화예술인을 찾아 시상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2월 6일까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한 '제33회 전주시 예술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접수 부문은 △문학 △음악 △극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건축의 10개로, 시는 각 부문별 1명씩 총 1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자 자격은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전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전북지역 거주자 중 전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이다.

또한 부문별 문화예술단체의 장(부문별 2인 이상 추천 필수)이나 부문별 문화예술인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도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추천서를 작성한 후 공적서와 이력서, 증빙자료 등을 갖춰 시 문화정책과(063-281-2733)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

원회를 열어 부문별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공적 내용이 부족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3회 전주시 예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28일 전주라한호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배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는 일상 회복 이후 개최되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소통과 화합도 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 2주 연장

12월 14일까지 연장... 12월 31일까지 소진 당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마감일이 오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카드 발급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급 및 이용을 바란다고 알렸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마감일은 통상적으로 이달 30일까지이나, 올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일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기한이 연장됐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분야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사용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반환되며 올해 안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재단이 운영하는 '전북문화누리' 블로그,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전라북도 내 다양한 사용처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재단 류상록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은 "먼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급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발급 받지 않은 대상자께서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남은 한 해 동안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아름다운 경험을 만들어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복권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9월 1일부터는 신규 발급 시 1만 원 상당한 11만 원을 지원하며, 기존 발급자에게는 1만 원 추가 지급을 완료했다.

/김재훈 기자

제10회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성료

장수문화원(원장 한병태)에서 주최·주관하는 '제10회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지난 24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이날 시상식이 열려, 공로상에 오보에 강사 지선아, 예술상에 서영은, 김예은 학생, 성실을 악상에 리유경, 장지환 학생이 수상했으며, 공역곡으로 사운드 오브 뮤직, 위풍당당 행진곡 등 총 10곡이 연주됐다.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는 2013년도에 창단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의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현재 문관철 음악감독과 관내 초·중·고등 학생 5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이번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장수 한우랑 시과랑 축제 공연에도 참여해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쳤었다.



한병태 문화원장은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는 문관철 음악감독님을 비롯한 강사님들의 열의와 학생들의 열정과 배기,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화롭고 균형 있는 장수군의 미래를 꿈꾸며, 아이들이 단원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박물관, '나도 작가다'展 개최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김은희)은 국립대육성사업의 대학 문화 예술 공간 공유의 일환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전시 '2022 나도 작가다'展을 지난 25일 열었다.

'나도 작가다'를 주제로 한 전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서예·공예·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지역민 23명이 참여했다.

전시는 12월 30일까지 전북대학교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우리 모두가 작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민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한 달 간 지역민을 대상으로 작품을 모집했고, 총 33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서예·캘리그래피·수채화·유화·복공예·한복 공예 등 작가의 개성이 담긴 작품들이다.

/김재훈 기자

무주군민연극단, 최북 일대기 열연

무주예체문화관서 30일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연극 공연

무주군민이 만드는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연극이 무대위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조선 후기 화가 최북 일대기를 다룬 연극이 마련돼 군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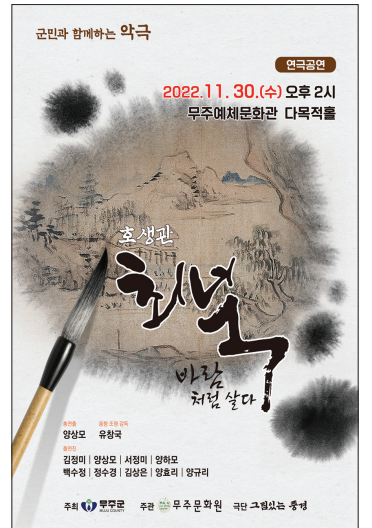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연극 공연은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과 극단 그림있는 풍경(양상모 감독)이 주관했다. 연극은 1장 '최북 눈을 찌르다', 2장 '최북의 어린시절'로 시작해 9장 '최북 혼이 되다'로 극이 마무리된다.

최북의 인생을 그린 무주군민연극단은 모두 15명으로 김정미, 양상모, 서정미, 양하모, 백수정 씨 등 9명의 배우가 최북 일대기를 열연하게 된다.

그림있는 풍경 양상모 감독은 "떨어진 낙엽을 지르받고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조선 3대 기인화가로 꼽히는 최북 화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연극을 보시면 가난했지만 뚜렷했던 주관과 강한 자부심으로 바람처럼 살다간 최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다"고 작품세계를 설명했다.

최북은 조선 후기 '추경산수도', '한강조어도', '누각산수도' 등을 그린 화가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차례에 걸쳐 도립국악원과 협연으로 최북의 사랑을 주제로 한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포스터

창극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를 전문 국악인과 연극인들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다"며 "이번엔 무주사람들로 구성된 '그림있는 풍경'에서 무주군민을 위한 호생관 최북을 조명해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소리문화전당 기획 '월드콘' 플라스틱 에이지 밴드 공연

소소한 행복나눔 작은 음악회인 '문화가 있는 날-월드콘'의 2022년 마지막 무대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진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연중 기획공연인 '문화가 있는 날-월드콘'은 실력 있는 지역의 예술단체들을 섭외해 전북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힐링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람료는 무료이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은 강원림(보컬), 강우주(기타), 이영재(베이스), 송은혜(드럼)로 구성된 4인조 모던록 밴드 '플라스틱 에이지(Plastic Age)'이다. 새로운 감정을 알게 되는 시기를 나타내는 의미의 '플라스틱 에이지'라는 탐방처럼 음악을 통해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관객과 공감하고자 하는 밴드이다.

이들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닌 주변에서 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 봤을만한 사랑, 이별, 만남, 추억 등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그들만의 음악을 통해 관객에게 들려준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문화가 있는 날-월드콘'은 '월간 드림 콘서트'의 줄임말로, 한 달에 한 번 지역예술단체에게는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해 '꿈(드림)'을 주고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나누어 드림'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담은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특히 매년 색다른 장르의 공연으로 전북지역 문화예술계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문화적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며 회차를 거듭 할수록 관객들의 큰 호응 속에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